

전남 산단용지 분양 면적 역대 최대

민선 5기 이후 13.7㎢ 팔려… 충남 이어 가장 많아

특화 산단 개발… 인구증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민선 5기 이후 전남에서 분양된 산업용지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양면적은 총 72.6㎢로 여의도 면적의 25배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연평균 18.2㎢가 분양된 것으로 지난 참여정부 실적(8.2㎢)의 2.3배

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 기간 전남에서 팔린 분양용지는 13.7㎢에 달해 충남(13.9㎢)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렸다.

이로 인해 전남도가 전남에 등지를 트는 기업이 많아 지면 인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에

총력을 쏟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산업단지 분양후 실제 기업의 입주 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산업용지의 입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 전남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한 인구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전남 미래산업의 성장 주체를 반영한 특성화 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분야(7개), 음·식료품(9개), 기계장비(4개) 등의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는 한편, 태양광(강진), 풍력(신안), 생물·의약(화순), 광산업·신소재(ugi그린)

등의 특화된 산단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양면적은 25.7㎢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던 2010년의 실적(21.7㎢)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운송장비, 전자·전기 등의 순으로 분양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올해 산업용지 28㎢를 추가로 지정·개발하고, 산업용지 20㎢를 기업에 분양하는 등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 만든다

전남도, 도로망 구축 등 166억 투자

전남도가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 조성을 총력을 쏟는다.

전남도는 25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로망 개설 및 종합지원센터 등 주변 절비 사업에 16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따라 해남·순천 등 7개 시·군에 올해 102억원을 투입해 27.9km의 자전거도로망 개설사업을 추진

한다.

지역별로는 광양시가 5.6km로 가장 길고 순천(4.9km)·강진(4.2km)·해남(3.7km)·영암(2.5km)·보성(4.4km)·무안(2.6km) 등이다.

전남도는 2019년까지 모두 1251억원을 투입, 도내 12개 시·군(목포·순천·나주·광양·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에

서 총 연장 267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14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나주·무안·곡성·강진 지역의 노후화된 자전거 도로와 시설물 절비 사업을 펼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한 자전거 보관대나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

전남도는 아울러 14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 나주·무안·곡성·강진 지역의 노후화된 자전거 도로와 시설물 절비 사업을 펼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한 자전거 보관대나 안전표지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진식 의원에 2000만원~3000만원 줬다”

제일저축銀 유동천 회장 진술… 윤의원 “돈 받은 사실없다”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구속기소) 회장이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유 회장이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책실장을 지낸 한나라당 윤진식(66) 의원에게 2000만~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유 회장에 대한 조사

에서 윤 의원이 2010년 7·28 재보궐 선거(충북 충주)에 출마했을 무렵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유 회장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를 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의원을 조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현재로서는 불구속 기소 가능성

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 관계자는 “협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진식 의원은 이날 보좌관을 통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수십년 전 업무상 (유 회장을) 아는 바 있으나 보궐선거 기간에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임동원기자 tuim@kwangju.co.kr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만들기 추진을”

이대통령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광주 인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디자인 미래상·목표 설정… 도시공간 재설계

광주시가 인본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25일,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해 ‘인본도시 디자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의 공공 공간에서 시민들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광주민의 매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풀리 사업,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사업, 경관 휴게공간 조성 사업, 도시디자인 미래상과 기본 목표가 설정된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재

설계를 통해 전략거점 및 중점사업 선정 등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도시디자인의 부문별 가이드라인과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연차별 추진전략과 선도사업 등도 제시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기존의 용역방식에서 벗어나 시청 도시디자인과 내에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한 후 총괄계획을 지명해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일본군 '위안부' 부자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00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이용수 할머니(오른쪽)가 집회 참가자들을 반기며 두 손

/연합뉴스

김숙 駐유엔대사, 유엔여성기구 의장에

“와 쥐셔 고마워요”

을 흔들고 있다.



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N Women은 기존 유엔 내 여성 관련 기구들을 통합해 지난 해 창설됐으며, 미셸 바첼레 전(前) 칠레 대통령이 총재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 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채체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짐증증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균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채체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짐증증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 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기 틴트에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기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찹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루’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멎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찹느릅나무 뿐만 아니라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법 제090204-증-4738호

2012-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며 가능>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일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회)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회)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교학처 (062)605-1112, 1063